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소식지



JUL-SEP 2018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 V. Newsletter

www.vekni.org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8 안내

2018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10월 초에 ESSEN에서 열립니다

관련소식: 9면 참조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존경하는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협회의 목적 중 하나는 한국과 독일간의 과학기술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행사가 EKC 입니다. 지난 8월에는 제11회 EKC 2018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EKC 2018은 재영과협이 주관하고 한국과총과 재독과협을 비롯한 유럽의 8개 과협이 공동주최자로 함께 하였습니다. 독일을 넘어 한국과 유럽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자리입니다. 유럽의 국가가 함께 하는 것처럼 유럽의 한인과 학기술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KC는 2008년에 재독과협의 주관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재독과협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EU-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로 재독, 재영, 재불, 재오과협이 참여한 행사였는데, 그동안 유럽에 더 많은 과협이 조직되어 지금은 9개 과협이 함께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라는 이름으로 EKC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KC 이전에는 ‘재유럽한국과학기술자학술대회’라는 명칭으로 2004년에 런던에서, 2006년에 파리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행사는 재불과협 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당시 유승덕 회장님을 보좌하여 간사장으로 파리를 오가며 행사를 준비하던 기억이 선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그 사이 EKC도 많이 발전하고, 모양도 조금씩 현 상황에 맞추어 변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미래로 전진하고 진화하는 것을 해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EKC 2019는 재오과협의 주관으로 비엔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독과협은 2020년에 EKC 2020을 주관하기로 하고, 지금 개최장소 프로그램 등 세부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길게는 2023년 재독과협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EKC 2023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통해 2008년에 처음 EKC를 개최한 이래 2012, 2016년도 행사를 주관한 재독과협이 한-유럽교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장이 될 것 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과 유럽의 교류는 어떤것 인지요? 한국과 독일의 교류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뜻을 모아 재독과협의 각종 행사와 EKC에 담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0월 5-7일 Essen에서 2018년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열립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재독과협을 위해 봉사할 제 30대 회장단을 선출 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원간의 유대 강화와 더불어 한-유럽 교류의 가교역할을 할 NGO로서 재독과협의 역할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8년 3분기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 있던 기간이라 소식지 내용이 적을 것 같다고 걱정하며 편집에 나섰는데, 편집하다보니 이야기 거리가 많아 기분이 좋다고 하던 김민재 편집간사님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편집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글로 소식지를 풍성하게 해 주신 회원님들과 각 처소에서 분업과 함께 협회의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박원선

6지역 (Darmstadt, Frankfurt, Heidelberg, Mainz)

2018년 7월 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6지역 3분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2분께서 참석해주셨고, 그 중 세 분께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분야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며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 자기 소개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식사로 비빔밥과 치킨으로 구성된 한식을 먹으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학술 모임은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등 6지역 내의 여러 지역 회원분들 및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한층 네트워킹을 두텁게 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학술모임에서 다뤄진 학술 주제로, 안현섭 간사장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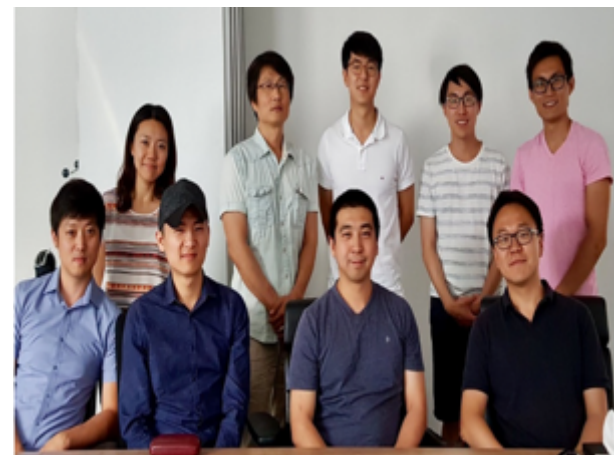
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진 덕에 흥미진진한 학술모임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6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하였습니다. 6지역 활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으며, 지역내 행사 공지사항 및 정보교류 등이 주 목적입니다. 링크는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9월 1일, 뮌헨 시내의 음식점에서 가을맞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가을 나들이 모임으로 야외 소풍을 계획하였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해당 모임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 (총 8명 참석) 과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의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주제를 시작으로, 정영광회원님의 산업용밸브를 위한 열적 코팅등의 공학 주제를 거쳐서, 허준화평의원의 머신러닝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9월 8일, 8지역 회원들의 하이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실내로 대체되었던 야외 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회원들끼리 즉흥적으로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뮌헨 근교 Andechs이란 작은 도시에서 맑은 날씨를 만끽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8지역회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하였습니다. 양방향 소통 및 회원간의 정보 교류, 그리고 평의원 주도 공식행사 이외의, 회원간의 즉흥적인 친목모임 (식사, 주말 하이킹 등)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링크는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지역 (Stuttgart)

7지역 회원으로 생명분과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셨던 Bosch Institute of Clinical Pharmacology 소속의 류창선 박사님이 최근에 KIST 유럽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던 류창선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권선범 회원님(화학과, 박사후과정, LMU München)이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임용 되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김용대 회원님(현대자동차 진동소음해석팀 책임연구원, TU München Applied Mechanics연구실 파견)이 1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차완기 회원님(Metal Forming and Cast-ing 박사과정, TU München)이 뮌헨의 P+Z Engineering GmbH 에 취업 하셨습니다. 이상현 회원님 (물리학 학사과정, TU München)이 물리학 학사 졸업 후 수학과 학사과정 복수전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병관 회원님 (전자정보공학 학사과정, TU München)이 학사 졸업 후 석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독과협은 회원님들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한희정 회원님(원자력공학 전공), 류윤지 회원님(Sport and Exercise Science 석사과정, TU München), 임새롬 회원님(물리학 학사과정, TU München), 이창 회원님(Magnetized Disc and Mirror Axion Experiment 박사후과정, Max Planck Institut für Physik), 유재민 회원님(전자정보공학 석사과정, TU München), 정명수 회원님(건축공학 전공, 건축설계사무소), 이문정 회원님(Exterior design, Audi AG)이 재독과협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 신규 회원님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독일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경험과 시간을 통해 각자 다른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독과협은 회원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기계분과 (항공우주 분야) 학술회 및 소모임

일시: 2018 년 7 월 27 일 (금)
장소: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
참가대상: 기계분과 산하 항공우주 분야 회원
책임자: 윤성호 기계분과장
실행위원: 박재홍 회원, 박다일라 회원

기계분과 산하 항공우주 분야 전문 학술 세미나가 2018 년 7 월 27 일 금요일, 브라운슈바이크 Luftfahrt Bundesamt 내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명의 회원분들께서 참가해주셨던, 이번 세미나는 총 6 명 발표자의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각기 다른 분야이지만 항공우주라는 특수한 범주로 묶여 각자의 관심사가 공통된 부분이 많아 더욱 흥미로운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개별 발표 시간 이후 5 시부터 6 시까지 진행된 특별 세션에서는 향후 항공우주 분야 지식 나눔 및 네트워킹 제반 확대, 추계 총회에서 기계 분과 아래 신설된 항공우주 세션 진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손민 박사의 참가 후기는 소식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협회 (KEMST) 5 차 포럼

일시: 2018년 6월 15-17일 (화-토)
장소: 포르투갈 포르투
참가대상: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6 월 15-17 일까지 포르투갈 포르투 Hotel HF Ipanema Park 에서 KEMST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협회) 5 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재료분과장 및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협회 (KEMST) 독일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윤송학박사의 인솔아래 재독과협에서는, 이현정 분과 코디네이터님, 윤송학 재료 분과장님, 조원익 박사님, 한태영 박사님, 최은진 재료 부분과장님 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편지형식으로 구성된 윤송학 분과장님의 참가 후기는 소식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한민족청년과학도/차세대과학기술리더 포럼

일시: 2018년 6월 26-30일 (화-토)
장소: 서울
참가대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1.5 세대 이후 해외동포 차세대 과학기술인

6월 26일 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에 재독과협에서 이기석님(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과 강남구님(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이 참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열린 차세대과학기술리더포럼(Young Profession Forum)에는 우리과협의 차예슬 박사(Freie Universität Berlin)와 이주한 박사(INM - Leibniz Institute for New Materials)가 참가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선 회장과 YGF, YPF 참가자의 기념 셀피입니다.

이기석님과 차예슬 박사님의 참가 후기는 소식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8 (EKC 2018)



2018년 8월 20-24일 Glasgow에서, 유럽의 과협회원, 한국 및 유럽의 과학기술자들이 함께한 EKC 2018에 재독과협 회원분들께서 약 55명정도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신 박원선 회장님과 과총회장상을 수상하신 안현섭 간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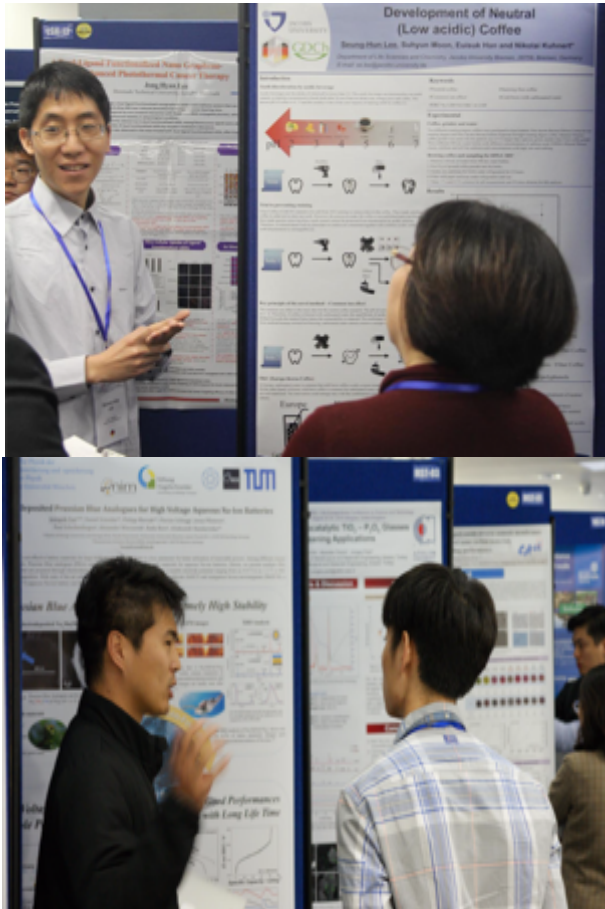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재독과협 많은 회원님들께서 포스터와 발표 세션에 참가해주셨고, 각각의 세션에서 자신의 연구에 관해서 멋진 발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포스터 상을 수상하신 이승훈님(Jacobs University Bremen)과 윤정식님(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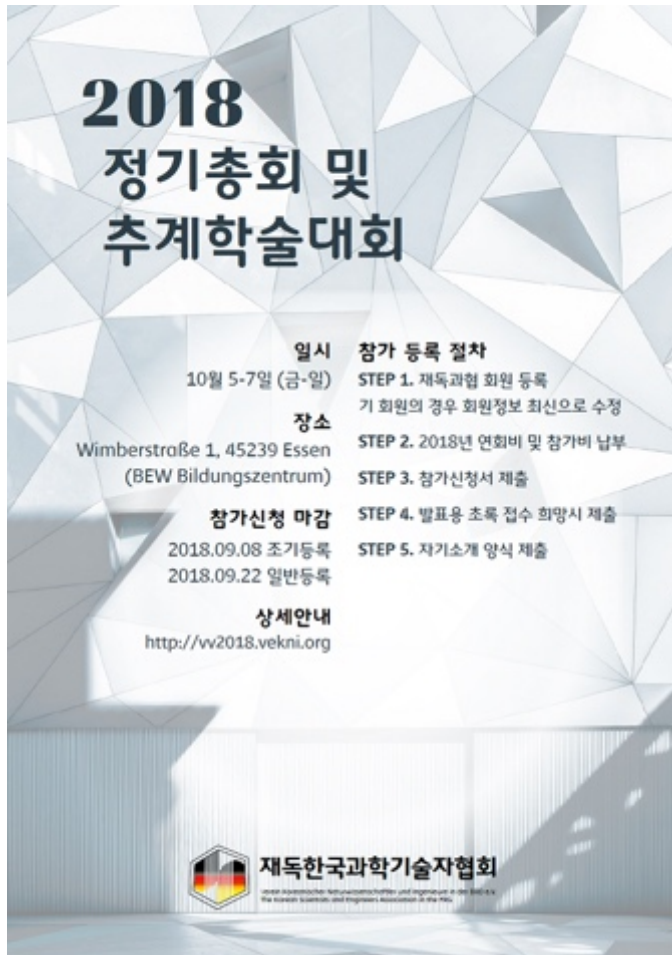


2018년도 글로벌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재영과학기술자협회에서 차세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및 기술사업화 (Technology Transfer) 캠프와 함께 적정 기술 캠프에도 많은 수의 재독과협 회원분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아래 사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독과협 사진 외에도 EKC 2018 홈페이지 www.ekc2018.org 에서도 기타 사진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김민재 회원님의 EKC 2018 후기도 소식지 말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안내



포스터 디자인: 권지희 회원님

지난 5월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10월 Essen에서 열립니다.

- 일시: 2018년 10월 5-7일(금-일)
- 장소: Wimberstraße 1, 45239 Essen (BEW Bildungszentrum)
-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학술세션 안내

- A 미래의 물리학 1 - 이론물리학/실험물리학 분야
- B 미래의 물리학 2 - 전산물리학/응용물리학 분야
- C 지속가능 기술
- D 미래 자동차 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
- E 항공 우주 기술
- F 기계 일반 기술
- G 생명과학
- H 최근 재료과학 발전 동향
- I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 J 자원순환
- K 기후 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건축 기술
- L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첨단 응용기술들
- M 화학일반

금년부터 달라진점

- 본 행사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통합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회원의 경우 가급적 Essen-Werden 역에서 픽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학술발표의 경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타 전공 회원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 PPT는 행사 당일 오전까지 iam@vekni.org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일차(10/7)에도 오전행사 및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정 계획 시 참고바랍니다.
- 비회원의 경우 초청자에 한해 참가 가능합니다. info@vekni.org 로 사전 문의하여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vekni.org/index.php?mid=vv2018>)를 참고 바랍니다.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및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전문정보사업)

전 회원 대상, 독일에서 연구를 시작하거나 연구과정 중 개별 연구소 및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원고모집 사업입니다.

- 1) 학사과정: 거주지역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소개 (학교 소개/시설/입학정보/기관이 위치한 지역소개/기타)
- 2) 석사, 박사과정: 전공에 따라 과정, 학교 또는 연구소 특징과 흐름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지원방법, 학업과정의 특징, 연구소의 중점사항), 연구소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연구소의 특징)

또한 박사과정 이상이나 연구소 소속 연구원 대상으로 본인 분야에 대한 개괄적 소개 또는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독일의 신기술 소개를 중점으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전문성강화를 위한 원고모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원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편집간사 김민재 (minjae.kim@vekni.org)

박사후연구원 커리어개발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

2018년 과총 특별사업 중 하나로 재독과협에서 박사후연구원 커리어개발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 (약칭: 박사후연구원모임) 전체 독일 전체 모임을 개최합니다. 박사 후 연구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H4 Hotel München Messe

일시: 2018년 11월 10-11일

대상: 독일 내 전/현직 박사후연구원 및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재독과협 회원

문의: 실행위원 이승섭 (s.lee@lmu.de)

제2회 한독 환경워크숍 (2nd Korea-Germany Environmental Workshop)

2018년 과총 특별사업으로, 심각해지는 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한국과 독일의 대기오염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2회 한독 환경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주제: Urban air pollution control facing human health

일시: 2018년 11월 13-14일

장소: Tagungshotel campus.guest der Universität Stuttg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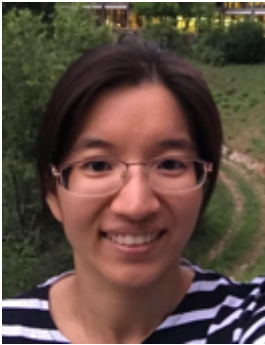
문의: 전문분과 코디네이터 이현정 (hyunjung.lee@vekni.org)

회원 공지)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및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전문정보사업)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독과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포럼 (Young Professional Forum) 참가 후기

차예슬 (박사후 연구원, Freie Universität Berlin)



모국에 한창 무더위가 시작할 6월 말 무렵, 저는 재독과협에 계신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열린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포럼, 혹은 Young Professional Forum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분야의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학에서도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다루는 학회는 참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전 분야 및 의학/약학까지 포괄하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행사가 특별하게 와 닿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 보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총 4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첫날 오전 과학기술인연합회 김명자 회장님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포럼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낯을 익힐 겸, 각국 대표 연구원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연구실과 지역의 특성을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우리 독일의 경우, INM (Leibniz Institute for New Materials) 의 이주한 박사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연구에 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연과학에서부터 공학의 각 분야, 의학, 약학까지 어우러진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공통점이라고는 한민족의 피가 흐른다는 것 뿐인 각국 연구원들이 그제서야 어색함을 조금 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럼의 진의는 이렇듯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공계인들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교류를 쌓는 데에서 좀 더 나아가, 특정한 몇몇 주제에 관해 나뉘는 토의를 거치며 각자의 전공지식까지 조금이나마 나눠보는 데에 있습니다. 일정의 반이 넘는 기간 중, 저희는 사전에 고른 주제별로 조를 짜서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와 관련없이 토론을 진행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생생한 현장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날에는 국가별 과학기술제도/보안 문제/4차 산업혁명 중 한 주제를 골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는데, 첫날부터 소개가 끝나자마자 이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고 발표준비를 시작하게 되어 상당히 당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제가 속한 조에 의학과 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의 특성을 살려 이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에 관해 주로 토의했습니다. 이 토의에서 다루게 된 것들이 흥미로워서, 저는 그 다음날 참가하게 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하던 블록 체인 등에 관해 전문가의 발표의 들어보는 값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첫날과 둘째날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셋째날에는 각자의 연구분야를 자연과학 혹은 공학 등으로 크게 나누어 조를 짜, 조별로 각자의 연구 경험을 나누고 연구 분야의 의의를 토의해 다른 조원들에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짧게나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미분 기하학 및 상대성 이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 주셨고,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 및 연구 철학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는 또다시 학계/연구소/산업체 등 각자가 목표로 하는 분야를 토대로 조를 나누어, 각 계의 전문가들과 탁상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격식을 덜 차리고, 다들 선배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평소 궁금하던 것들을 마음껏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의 끝, 마지막 날에는 민속촌과 수원 삼성전자를 방문하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포럼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한국인 3세 등, 모국과의 인연이 엮어진 연구원들도 많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로 이민가 모국에 관한 기억이 거의 없는 한국인 2세 및 3세들과 함께 민

속촌에서는 모국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삼성전자에서는 과학기술강국을 꿈꾸는 모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속이 야기도 조금씩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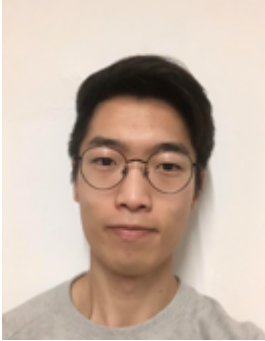
포럼에 참가하기 전, 단기 계약 하에 있는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진로에 관한 걱정 및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럼 중에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미 통과한 바 있는 선배 연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고, 다른 흥미로운 분야들을 접하며 제 진로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포럼 첫 날 특허왕으로 잘 알려진 카이스트 전산학과 한동수 교수님께서 연구자가 가져야 할 자세 중 자기 혁신에 관해 발표해 주신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시류에 맞고, 본인도 잘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서 임해야 하며, 필요할 시에는 과감하게 연구주제도 바꾸는 등 꾸준한 자기 혁신을 하라고 하신 바 있는데, 알아 듣기에는 쉬우나 연구자로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에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겼습니다. 앞으로 제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되든 스스로에 갇혀 있지 말고, 주위를 살펴 이에 어우러지도록 스스로를 바꾸려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듯 마음으로 얻어가는 것이 많아 되도록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귀중한 기회를 주신 재독과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 후기를 마칩니다.



YGF 참관기

이기석 (TU Berlin)



안녕하세요! 작년 2017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부터 재독과협에서 활동중인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1지역 TU Berlin에서 에너지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여름 독일 대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었던 Young Generation Forum에 8지역 강남구회원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행사는 1,5세 또는 2세에 해외동포 청소년들이 서로간의 네트워킹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며 서로 이끌어주는 목적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4박5일간의 YGF행사를 짧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날에는 나라별로 구분된 부스에서 각자 나라의 대표적이지만 간단한 간식거리와 음료들, 유명한 장소들을 서로 보여주고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몇명의 대표들이 만들어온 각자의 나라 소개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데로 준비해온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들을 계기로 서로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친해질수있지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둘째날은 코엑스에서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 YGF와 YPF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였는데, 한국 과학기술에 공을 세우신분들의 시상식과 4차산업혁명 및 여러 다른 주제를 다루는 발표를 많이 들을 수있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독과협 박원선 회장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셔서 전체 독일 참가자 4명이 함께 잠깐이나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을수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셋째날은 하루종일 YGF 행사 사전에 주어졌던 여러 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각 전공별로 두번에 모임을 가지며 토론한 결과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모든것을 계획했고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재치있는 발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수 있었기에 한층 더 훈훈해지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날은 아침 일찍 수원 근처 민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관광 가이드분께서 옛날 조상들의 삶과 지혜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날인 다섯째날이 아무 일정이 없었기에, 넷째날이 사실상 저희에겐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문에 그만큼 많이 시끄럽고 산만 했지만, 흥미로운것들을 많이 배워갈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속촌 방문이후에는, 수원에있는 삼성전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취직할 선배분들께 자기소개를 들었고 Q&A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모두에게 많은걸 얻어갈수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참가자들끼리의 자유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함께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것도 먹고 술도 한두잔 기울이면서, 서로 각자의 그동안 경험과 미래 계획 등등을 함께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기중에 가는 행사였던지라 기대반 걱정반으로 참석했던 행사였지만, 같은 또래의 다른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의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를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볼수있는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제 인생에서 손꼽을수있는 보람찬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만 참석할수있다는게 너무나도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내년에 참석하게 될 회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제 YGF 2018 참관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MST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협회) 5 차 포럼을 다녀와서 ¹

재료분과장 윤송학 (Stuttgart Universität)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화창한 금요일 점심 슈투트가르트를 출발하여, 오후에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 포르투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도착하신 KEMST 운영위원분들과 함께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호텔 앞 빵집에서 늦은 오후 간단히 에스프레소에 에그타르트를 먹었는데, 그 맛과 놀라고 겸손한 가격에 더 놀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총회로 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참석한 회원분들 한분 한분 각자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KOSES) 김원재 박사가 차기 KEMST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총회 후에는 각국의 코디네이터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후 네트워킹을 위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호텔 식사는 훌륭했으며, 삼삼오오 모여서 친교의 시간으로 그 동안

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시내 구경을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호텔 내에서 밤 늦게까지 네트워킹을 이어나가기도 하셨던 거 같은데, 내일의 포럼을 위해서 었을까요? 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식사 후 김세종 회장님의 개회사, 네덜란드 과협 회장을 맡고 계신 조형실 박사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2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LG 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의 이정수 원장님이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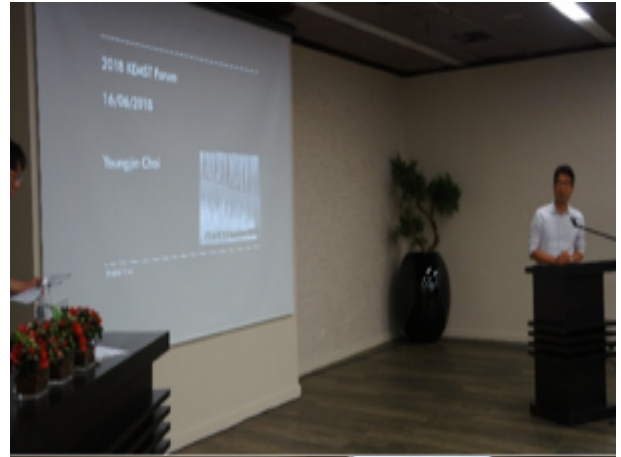
¹ 편지 형식으로 구성된 윤송학 분과장님의 후기 재미있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재형 연구위원님이 대신하여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KIAT 의 박천교 소장님께서 KIAT 의 기관 소개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다른 연사분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세션이 끝나고, 이번 포럼 프로그램중에 가장 특이한 점이었던 패널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Next Generation Energy Materials 라는 주제로 먼저 패널들의 짧은 발제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회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처음이라 패널토의나, 청중들의 질의 응답에 미숙함이 들어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패널 토의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것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지만, 이런 신선한 시도들을 통해 포럼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Coffee & Tea break 중에도 예외없이 끊임없는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고, 점심을 함께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진행된 오후 세션의 내용을 다 담기에 당신은 벌써 지루해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몇 장의 사진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작년 부다페스트 4 차 포럼에서처럼 (2017 년 유럽재료소재전문가협회 4 차 포럼 참석 후기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나머지 회원분들 (18 명)이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해 예정된 5 분 발표보다 좀 더 짧게 빠르고 간단한 요약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효과적인 엘리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 내용을 한분 한분 발표하시는 동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 했습니다. 폐회 직전, KEMST 공로상과 LG awards 수상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세종 회장님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포럼의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KEMST 운영위원 분들과 KIST 유럽에서 참석하신 김준경 소장님이하 박사님들간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설명하는 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밀알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국에서 오신 임종철 박사님과 일요일 오후 함께 포르투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

고, 덴마크에서 오신 배도원 박사님과는 포럼 후에 발표자료를 공유하며 연구/수업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 5 번의 모임이 있었네요. 포럼에서 만나게 뭐 그리 대단한 것 이냐고 반문 하시겠지만, 그 시간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잣대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었던 로맨틱했던 Douro 강 야경과 싱그러운 바닷바람의 포르투, 그 곳의 풍경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포럼에는 당신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애 첫 영국이 스코틀랜드가 될 줄이야

편집간사 김민재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몇년 전 스코틀랜드 지폐에 사상 처음으로 영국 여왕이 아닌 여성의 얼굴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해양성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18세기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메리 서머빌(1780-1872)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EKC 2018은 스코틀랜드의 두번째 도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오랜 시간 잉글랜드의 한 축구 클럽을 지켜봐 온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애 첫 영국 방문은 설레기만 했습니다.

전 유럽을 거쳐가며 매년마다 개최되는 EKC는 주로 재유럽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발표, 토론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덕분에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자신의 연구/학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과학자, 공학자 분들을 많이 뵈 수 있었습니다. 재독과협에서는 대략 55명정도의 회원분들이 참석해주셨고, 그 곳에서 처음 뵈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제가 제출한 초록 중 하나의 초록이 4번째 기초과학세션(부제: WATER ON EARTH: RAIN, RIVER AND OCEAN)이 포함되어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된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시간대가 다른 큰 세션들과 겹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진 못하였지만, 재독과협 회원분들께서 한데 모여서 발표를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KC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시각의 접근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 연구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 연구원분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데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신 걸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고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참 뜻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최소 3회 정도의 국제 학회를 참석하고 있지만, EKC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매년 다른 학회를 갈때마다 낯선 환경에 대한 기대와 염려들이 있었기에 긴장을 하곤 했지만 EKC는 같은 언어를 쓰는, 또 최소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에 계시는 많은 동료 연구원분들이 이뤄내시고 계시는 성과를 포스터세션과 발표세션을 통해 알아가면서 더 큰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과학과 공학,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가 게시 되었던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심도있는 Q&A를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내년 EKC는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Vienna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많은 자극을 받은 덕분에 그때까지 저 스스로 해내고 싶은 일들, 또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들의 EKC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계분과 항공/우주 분야 학술 세미나 참여 및 참관 후기

손민 (박사후 연구원, Institute of Space Propulsion, DLR)



이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상당한 우연과 인연이 겹쳤다. 현재 근무하는 연구소에 포닥으로 오자마자 우연찮게 한국인이 같은 연구소에 근무 했었다는 이야기를 동료로부터 듣고, 이후 Stadtfest에서 만나 박재홍 위원장님과 인연이 닿았다. 이전까지는 재독과협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었지만 박재홍 선임연구원님께 소개를 받고 좋은 기회에 발표 및 참석 초청을 받았다. 현재 근무하는 지역과 세미나가 개최되는 지역이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타지에서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었고, 마침 협회에서 출장비에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흔쾌히 수락하고 참석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와 순서는 위와 같이 항공세션과 우주세션으로 구성되었지만, 정찬대 님의 발표는 연구소 보안문제로 아쉽게 취소되었고 허환일 교수님은

악명 높은 도이치 반의 열차취소로 참석을 못하셨다. 먼저 박재홍 분과위원장님이 개회인사와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경위, 전문분과 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항공 세션이며 전영진 박사님은 유동 가시화로 매우 유명한 LaVision 사에서 데이터 후처리 관련하여 연구하여 관련 내용이 발표하였다. PIV 기술은 입자 등을 유동에 흩뿌리고 레이저를 통해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여 유동의 벡터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는 입자의 궤적으로 유동장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유동장에 대비하여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 불완전한 PIV 측정데이터를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이용한 계수를 통해 후처리 하여 물리적 법칙을 만족하는 유동장으로 보정하였다. 단순한 속 도장만 추정 가능했던 기존의 PIV 결과를 개선된 속도장으로 보정하고 속도 뿐만 아니라 압력장 까지 도출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는 현재 내가 연구중인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며 LaVision 사의 최신 기술 동향 및 현재 한계도 습득할 수 있었다. 박다일라 부위원장은 실험에서 압력 계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호왜곡에 대해 발표하였다. 스텝으로 전달되는 압력파의 신호를 계측하고 좁고 긴 유로를 통해 전달되어 왜곡되는 신호를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험을 통해 이를 비교하였다. 매우 명확하게 들어오는 초기신호와 달리 관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공명과 간섭을 통해 오버슈트와 언더슈트 특성을 보였으며, 이를 유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서 전달할수를 비교하였다. 압력계측에 대한 왜곡은 모든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고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써 모든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과 긴 논의가 진행되었다.

커피브레이크 이후 진행된 우주 세션에서 윤지중 박사님은 독일에서 진행하는 신산업 정책인 인더스트리 4.0에서의 소형위성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셨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제조업 등의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인데, 여기에 중요한 기술은 통신 기술이다. 기존의 지상형 통신망은 대도시 및 주요 도시에서는 유효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상망 구축에 대해 많은 비용이 소비될 수 있다. 최근 소형위성이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 여러 대의 소형 위성망으로 전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이 현실화 되면서 이를 인더스트리 4.0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공과는 다소 먼 주제이기는 하였으나 위성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미래의 우주산업에 대해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발표였다. 다음은 내 발표 차례였고 재사용 발사체와 우주탐사선에 활용가능한 추력제어 기술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다양한 추력제어 기술 중에 Space X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틀 인젝터 기술에 대해 장단점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핀틀인젝터는 추력조절에 용이하고 엔진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소기의 냉각 문제 등의 단점이 있어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기술이다. 이용호 연구원님의 다음 발표는 광학기술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재 연구중인 분야는 레이저 간섭계에 대한 기반기술이지만 이를 응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같은 연구소 내의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해주셨다. 레이저 간섭계는 레이저를 발진하고 반사하여 되받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상차를 이용하여 무

거운 별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레이저 간섭계를 매우 근접하여 궤도에 떠있는 두 개의 인공위성에 적용하여, 지구 중력에 따라 생기는 인공위성의 위치 차이로 지구 중력지도를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는 레이저 간섭계의 성능검증을 위한 사전 프로젝트이고, 추후 약 300만 km 떨어진 거리의 인공위성에 적용하여 중력파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레이저의 확산 등 매우 도전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박재홍 선임연구원님은 최근 발사체 개발 트렌드인 소형 발사체의 현재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가장 선두그룹인 Space X의 Falcon 1 및 Falcon 9을 필두로 블루오리진의 쉼퍼드, 로켓랩의 일렉트론 등 다양한 발사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소형발사체는 앞서 발표된 위성개발의 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와 달리 소형 위성의 성능이 크게 높아지고 발사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블루오션으로 타겟팅하여 주 1회 발사부터 72시간당 1회 발사까지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회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주개발 중 장기계획에 명시된 발사체 기술의 산업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같은 시장을 목표로 소형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허환일 교수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박재홍 선임연구원의 대리발표를 통해 우주개발 계획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산업체 주도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도 주요한 정부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참석자들 모두 한국도 우주개발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약 반나절 진행된 세미나는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다른 학술대회는 같은 주제를 묶어 발표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내용들이 진행되어 진부한 면이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진행방식은 다른 분야에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긴 하나 식견을 넓히고 내 연구주제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에게도 이번 발표기회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기존에는 많은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여 용어 선택이 쉬웠지만, 이번 발표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청중에게 소개할 때에는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용어선택도 쉽지 않았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고민하여 발표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고 설명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세미나 이후 이어진 저녁식사와 네트워킹 자리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타향살이에 큰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재독과협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행사였으나 매우 좋은 인상이 남았고, 추계학술대회나 EKC에 참석하여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 개최를 위해 수고하시고 좋은 자리에 초청 해주신 박재홍 위원장님과 박다일라 부위원장님께 매우 큰 감사를 드린다.



2018년 현재 아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가 더욱 편리하고, 새로운 정보 가득한 홈페이지로 변화하였습니다.

www.vekni.org

회원가입 안내)

온라인을 통해 (<http://reg.vekni.org>) 신입회원 등록과 함께 기존 회원님의 정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모든 회원님께서 아래 링크에 등록하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별, 분과별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중요합니다.

문의 : 정보간사 편성열 (sungyeol.pyeon@vekni.o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페이스북 그룹



회원간의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을 전하는 공간, 재독과협 페이스북 그룹이 개설되었습니다. 회원간 친목, 사진 게시, 질의 응답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검색 또는 다음 링크 주소를 이용바랍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www.facebook.com/groups/348153868866931

문의 : 홍보간사 김청희 (cheonghee.kim@vekni.o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래주소로 들어오시면 재독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원분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https://open.kakao.com/o/gizwXBr>

문의 : 홍보간사 김청희 (cheonghee.kim@vekni.org)

2018년 주요 행사 일정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지역 및 전문분과 모임 및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12개 지역회 및 8개 전문분과회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회장단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Kiel 등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장단

2018년 1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8년 3월 2-4일 (금-일)

장소: Berli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자문위원회

일시: 2018년 4월 13-15일 (금-일)

장소: Augsburg

참가대상: 재독과협 자문위원 및 회장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5월 4-6일 (금-일)

장소: Darmstadt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EKC 2018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일시: 2018년 8월 20-24일 (월-금)

장소: Glasgow, UK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유럽의 과협회원, 한국 및 유럽의 과학기술자

2018년 2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8년 10월 5일 (금)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2018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10월 5-7일 (금-일)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한독공동학술대회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주관)

일시: 2018년 10월 17-19일 (수-금)

장소: Aachen

참가대상: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회원, 한국 및 독일의 과학기술자, 재독과협 회원

제2회 한-독환경워크숍

일시: 2018년 11월 13-14일 (화-수)

장소: Stuttgart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한국, 독일 및 유럽의 환경전문가

독일 차세대 과학도의 고국 교류 및 현지 네트워크 역량 강화 포럼 - 재독과협 차세대 리더 모임

일시: 2018년 11월 24-25일 (토-일)

장소: Frankfurt

참가대상: 재독과협 차세대 리더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KNI e.V.

Holtener Str. 69.
24105 Kiel, Deutschland

Homepage : www.vekni.org

E-Mail : info@vekni.org

회원들의 제보 및 의견을 받습니다.

minjae.kim@vekni.org 편집간사 김민재



Email: info@vekni.org